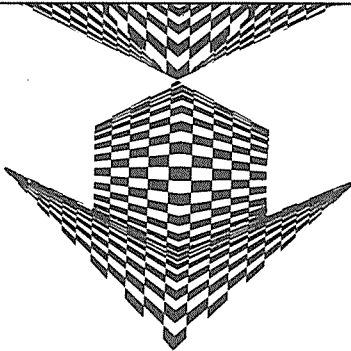


새로운 이론을 통해 본 향후 油價전망



도이찌 쯔도무

〈日本에너지경제연구소 연구실장〉

90년대 중반에 原油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95년 위기설에 대체하는 새로운 통설이 등장했다. 90년대를 통해 原油가격은 배럴당 15~20달러 범위 안에서 변화할 것이라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시장기구를 증시하는 이 견해가 맞다면 금세기중 제3차 석유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설은 자기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日本 에너지경제연구소 도이찌쯔도무 연구실장의 논문을 통해 새로운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1. 머리말

1980년의 국제石油시장은 70년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9년의 제2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배럴당 40달러 가까이 상승했던 油價는 그후 서서히 하락해 86년 상반기의 OPEC(석유수출국기구) 증산경쟁으로 10달러까지 떨어졌다.

油價하락으로 수입이 감소된 OPEC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협조관계회복을 계기로 이라크를 제외한 12개국이 새로운 감산제에 합의, 1987년 2월부터 18달러 固定油價制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란·이라크 전쟁의 격화, 메카사건을 계기로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었고, 87년 여름이후 中東산유국의 증산, 가격할인 판매로 18달러 고정유가제는 사실상 붕괴되어 최근에는 1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같은 原油가격침체는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그리고 非OPEC지역에서의 石油개발을 크게 위축시켜 1900년대 중반에는 다시 OPEC 石油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또 1986년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선진공업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운동이 한층 강화되었고, 최근에는 석탄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의 대량소비에 따른 온실효과 등 지구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8년에 걸친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나 폐쇄된 국내경제재건을 위해 양국이 증산경쟁을 시작해 原油가격이 다시 급락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었다.

이와같이 금후 에너지정세를 둘러싼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앞날을 전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앞에 서술한 새로운 정세변화에 근거해 중·장기 국제석유시장과 原油가격을 전망해 보자.

2. 기존의 통설 : 95년 위기설

90년대가 되면 세계石油수급이 팽박해져 OPEC가 다시 시장지배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요인의 하나는 최근의 예상을 초월한 石油수요 증가이다. 자유세계의 石油수요는 79년에 5,090만B/D로 최고에 달한 후 제2차석유위기에 의한 가격급등과 세계경제의 저성

장으로 감소경향을 지속, 85년에는 4,530만 B/D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原油가격이 급락한 86년 이후에는 石油소비 증가율이 연 2%를 약간 넘는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 높은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日本, 美國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신장되고 있다. 만약 이와같은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자유세계의 石油수요는 매년 약 100만B/D 증가해 95년에는 5,500만B/D로 제2차 석유훁기 당시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게 될 것이다.

95년 위기설의 배경이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非OPEC의 原油생산 동향이다. 최근의 油價침체로 세계石油탐사, 개발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非OPEC의 原油생산량은 지금까지의 증산추세에서 감소로 反轉될지 모른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생산코스트가 높은 美國의 石油생산량은 85년의 1,050만B/D에서 87년에는 990만B/D로 감소했다. 또 英國의 北海생산량도 86년에 절정을 이룬뒤 약간씩 감소되고 있다.

이와같은 石油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非OPEC의 공급량 감소로 90년대가 되면 OPEC 石油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95년을 전후해 原油가격이 배럴당30~40달러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 견해는 IEA와 엑슨등 메이저들이 지지하고 있는 현재의 통설이다.

또 지난해 9월에 美國하버드대학 연구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原油가격침체로 91년에는 다시 배럴당 32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자유세계 石油수요가 매년 140만B/D(년 3%)씩 증가하고, 非OPEC의 原油생산량이 매년 60만B/D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OPEC原油에 대한 수요는 매년 200만B/D씩 증가해 갈 것이다. 그 결과 OPEC 原油의 생산량은 88년의 1,900만B/D에서 91년에는 2,500만B/D에 이르러 현재의 OPEC 생산능력 2,800만B/D의 80%를 넘게될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OPEC의 原油생산능력의 변동률이 80%를 넘으면 수급이 팽박해져 가격인상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90년대중 비교적 빠른 시기에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새로운 통설 : 배럴당 15~20달러

그러나 최근 해외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 새로운 통설로 불리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통설이란 향후 5~10년간 原油의 실질가격(87년 달러가격)은 배럴당 15~20달러에서 등락되며 이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와같은 견해가 대두된 배경에는 가격이 20달러를 크게 상회하면 그것을 억제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반대로 15달러를 크게 하회하면 가격을 인상시키려는 힘이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는 힘은 첫째 현재OPEC회원국에는 1,000만B/D에 가까운 잉여생산능력이 있고 또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나 양국의 생산능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90년대에도 공급과잉은 해소되지 않아 가격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原油가격의 침체에 따라 非OPEC국가의 증산경향이 감소되었지만,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고 90년대에 들어서도 약간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최근의 原油가격급락으로 탐사, 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합리화, 효율화 및 기술진보에 의해 개발·생산코스트의 현저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메이저의 탐사, 개발투자도 코스트가 높은 北美와 北海지역에서 개발조건이 좋은 非OPEC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고 있고 탐사기술 발달로 중소규모의 생산코스트가 높은 유전도 15달러 내외의 가격이면 경제성을 갖게 되어가고 있다.

셋째 原油가격이 중장기적으로 20달러를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뒤에는 天然가스의 이용 확대가 지적되고 있다. 70년대에 原油가격이 급등한 결과 石油탐사·개발이 붐을 이루어 석유도 많이 발견되었지만 동시에 세계 각지에서 천연가스도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가채년수(R/P)로 보면 87년말 현재 原油는 약 40년인데 비해 천연가스는 약 60년으로 방대한 물량이 남아있다. 만약 原油가격이 20달러를 크게 상회하면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石油에서 천연가스로 에너지전환이 활발해질 것이다. 또 최근에는 천연가스에서 메탄올, 가솔린, 경유 등을 적은 비용으로 합성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에서도 石油에 대한 천연가스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로얄 더치 쉘은

천연가스에서 경유 및 제트연료유를, BP는 가솔린을 적은 비용으로 합성하는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90년대 전반에는 油價가 배럴당 20달러 이하에서도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원가절감에 힘쓰고 있다.

넷째, 에너지 가격의 침체로 에너지절약 노력은 약화되었지만, 설비 및 기기의 개선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石油수요 증가는 예상을 초과하고 있지만 경기순환에 의한 일시적인 요인도 있어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특히 美國의 경제가 금년 이후 침체된다면 石油수요도 정체 내지 감소할 수도 있다.

다섯째, 과거 두차례 석유위기의 교훈으로 산유국 및 수입국 쌍방간에 石油공급 중단에 대한 대응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中東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호르무즈해협을 경유하지 않고 石油수출이 가능한 전략 파이프라인망의 건설이 크게 진행되었다. 또 日本, 美國, 유럽의 선진공업국에서는 전략비축이 증강되어 비록 石油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전과 같은 공황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긴급시 대책이 IEA를 중심으로 정비되어 왔다. 87년 여름 페르시아灣에서 유조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原油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도 이와같은 대응책이 추진되어 온 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같은 이유에서 금후 5~10년간의 油價추이를 전망하면 OPEC가 20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서 原油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비록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작용해 단기간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배럴당 15달러를 크게 밑도는 저가격도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原油가격이 10달러 가까이까지 떨어지면 산유수입이 급감해 OPEC 뿐만 아니라 非OPEC를 포함한 산유국이 어떤 형태이든 협조감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石油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고 천연가스와 석탄에서 중유로 전환이 이루어지기도해 저가격에 의한 수요증가로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石油가격의 침체가 계속되면 美國에서는 국가안전

보장 확보와 국내석유산업의 보호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石油수입 과징금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과징금이 도입되면 美國의 石油수입이 감소해 국제시장의 원유가격은 가격인하 압력을 받기 때문에 OPEC는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증산에 의한 저가격 정책을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

4. 통설의 실현가능성과 대응 방안

금후의 중장기적인 原油가격의 전망은 위와같이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原油가격에측 역사를 보면, 통설이 확립되어 간다면 현실은 그와같이 되지않는 경우가 많다. 70년대와 같이 原油가격은 장래에도 상승을 계속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 되면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의 개발, 非OPEC 지역에서의 石油개발이 진행되어 OPEC 석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가격은 침체할 것이다. 반대로 石油공급에 대한 불안은 없고, 또 原油가격도 그다지 상승하지 않는다고 다수가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설이란 것은 자기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原油가격이 이와같은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에너지 투자 주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石油개발을 시작으로 원자력, 석탄, LNG 등의 대규모 신규에너지 개발은 투자 의사결정을 한 뒤 시장에 공급될 수 있기까지는 10년 가까운 긴세월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기업의 투자정책은 눈앞의 原油가격 움직임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메커니즘 중시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美國에서는 이런 경향이 현저하다. 86년의 原油가격 급락 이후 石油수요증가와 국내 石油 생산감소로 美國의 石油 순수입량(수입량-수출량)은 85년의 430만B/D에서 87년에는 580만B/D로 급증, 제1차 석유위기가 일어난 73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였다. 그리고 셰브론의 전망에 의하면, 95년에는 900만B/D, 2000년에는 1,000만B/D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우기 美國의 원자력 개발은 79년의 드라마일섬(TMI) 사고와 86년의 체르노빌 사고로 더욱 정체도가 심해졌

고, 또 최근에는 산성비와 온실효과 등 지구의 환경문제에서 석탄의 이용확대에 대한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문제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가고 있는 美國에서도 레이건후의 신정권은 수입석유 감축을 위해 유효한 대응책을 구상할 필요성이 강요될 것이다.

그러면 금후 原油가격을 어떻게 전망하면 좋을까. 기본적으로는 70년대와 같은 가격 급등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그 이유는 새로운 통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原油가격의 급등에 대한 에너지 시장의 대응능력은 과거 10년 가까운 시기에 크게 개선되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등 대다수 OPEC산유국도 경제원칙을 무시한 가격인상은 石油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해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는 것을 귀중한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후 5~10년은 15~20 달러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현재 걱정되는 것은 이란·이라크의 정전을 계기로 양국의 증산압력이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OPEC가 유효한 감산정책에 합의하지 않고 금후 수년간 15달러를 밑도는 저가격이 계속되는 것이다. 만약 공급과잉에 의한 저가격이 장기화되고 石油수입국에서도 石油공급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으로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개발이 크게 지연되어 향후 다시 OPEC 石油의존도가 크게 상승하면 90년대 중반에는 일시적으로 油價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中東지역에는 세계原油확인 매장량의 3분의 2가 편재해 있고 또 현재 세계의 잉여생산능력의 대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OPEC에 대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연안 산유국에서는 소수 지배자의 정치적 판단으로 石油정책이 크게 변화할 위험이 항상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石油가격은 경제합리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도 좌우되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게다가 또 하나 주의할 것은 石油가격의 변동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새로운 측면이다. 즉 80년대 들어 재정적자,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는 美國경제의 불균형 확대로 세계경제의 투기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OPEC의 가격지배력이 감소됨에 따라 石油에서도 先物市場이 급성장을 보여 현재 原油가격은 환율, 금리, 주가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Money game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만약 앞으로 어떤 이유로 原油의 선물가격이 급등하면 순식간에 세계의 환율, 금리, 주식시장등에 그 영향이 파급되어 인플레이를 걱정하는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70년대에 비해 石油공급의 중단에 대한 금융면의 위협을 거꾸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서술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石油공급과 가격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위기감을 부채질하는 것도 또 과도하게 낙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사전에 유효한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피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게을리하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OPEC는 앞으로도 原油가격의 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회원국간의 뿌리깊은 정치적·경제적 이해대립으로 판단해 石油시장을 장기에 걸쳐 안정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의문이다. 따라서 각국정부는 原油가격의 등락이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에너지 대책등을 앞으로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石油가격의 안정화와 에너지 안정공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니케이 비즈니스)

